

판막첨 연장술을 이용한 대동맥 판막 성형술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안 혁

대동맥 판막 질환에서 판막성형술이 여러 형태로 이루어져 왔으나, 자가심낭편을 이용하여 판막을 재건 또는 성형해주는 방법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병원 흉부외과에서는 1995년 4월부터 8월까지 Glutaraldehyde 용액에 고정시킨 자가심낭을 이용해서 판막첨 연장을 시키는 대동맥 판막 성형술을 6례에서 시행하였다. 이 6례는 남자가 5례, 여자가 1례였고, 평균연령은 34.0 ± 15.1 세였다. 이 6례의 환자들은 수술전 심초음파 검사 및 심도자 검사에서 모두 Grade IV의 대동맥 판막 폐쇄부전증이 있었으며 이중 4례는 류마티스성 열이 원인 이었고, 1례는 퇴행성 변화였으며 나머지 1례는 원인을 알 수 없었다. 사용된 자가심낭은 0.625% Glutaraldehyde 용액에 15분간 고정시킨 뒤, 생리식염수로 15분간 잘 씻어낸 후 사용하였다. 수술은 심낭조각을 직사각형 또는 아래면만 타원형으로 자른 사각형 모양으로 대동맥 판막의 크기에 맞게 자른 뒤 각각의 대동맥 판막첨의 자유연 (free margin)에 봉합해서 판막첨을 연장시켜 새로운 자유연을 만들어 주어 폐쇄부전을 막는 방법으로 하였으며, 6례의 환자들의 판막첨의 모양 및 크기가 서로 달랐고 병변의 정도도 차이가 있어서 각례의 수술은 모두 조금씩 다른 형태로 이루어 졌다. 또한 2례의 환자에서는 승모판막 성형술도 동시에 시행하였다. 병원 사망율은 없었고, 항응고제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혈전증 등의 합병증은 없었다. 모든 예에서 수술후 단순흉부촬영상 심장의 크기가 현저히 감소했으며, 수술후 시행한 심초음파 검사에서 좌심실 수축기말 구획 (LVESD)과 확장기말 구획 (LVEDD)도 현저히 감소되었다. 이 판막첨 연장술은 그 내구성과 오랜기간 동안의 추적검사 결과가 아직 미지수이지만, 비교적 간단하고 안전한 술식이라고 판단되며, 대동맥 판막 성형술에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